

## ‘디카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용호\* · 김정순\*\*

### 차 례

- |                                     |                                    |
|-------------------------------------|------------------------------------|
| 1. 서론                               | 3. ‘디카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br>과정 구성 방안 |
| 2. 외국인 유학생의 ‘디카시’ 작품 사<br>례 분석      | 1) 교육 목표 및 교육 대상                   |
| 1) 글쓰기에서 ‘사진’의 역할과 ‘디<br>카시’ 활용 가능성 | 2) 교육 내용                           |
| 2) 영상 이미지에 나타나는 ‘장소’<br>의 의미        | 3) 교육 방법                           |
| 3) 표현 ‘오류’에 관한 첨삭 지도<br>방향 제언       | 4) 교육 평가                           |
|                                     | 4. 결론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디카시’를 활  
용할 가능성과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디카시’를 활용한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제1저자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공동저자

았다. ‘통제된 조건’과 ‘전형적인 한국어 형태의 반복 학습’이 학습자의 의지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재나 교수가 제시하는 주제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에 관한 짧은 시를 씀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자는 ‘디카시’ 쓰기를 거치면서 ‘전형적인 한국어 표현’ 이외의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자신만의 한국어를 구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와 같은 한국어 학습은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졸업 후 ‘번역가’나 ‘이중 언어 작가’와 같은 직업을 찾을 때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디카시’ 쓰기 과정에서 유학생은 일상 속에서 글감으로 쓰일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 공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공간을 탐색하고 의미를 두고 촬영한 사진에 짧은 글로 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유학 생활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생활하는 한국의 공간을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 ‘디카시’ 쓰기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관한 동기와 흥미를 유도·지속하고, 자신의 일상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통해 한국어라는 낯선 공간에서의 적응력을 키우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디카시,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 교육

##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학습자)에게 ‘디카시’ 쓰기

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디카시’를<sup>1)</sup> 교육에 접목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인 학습자’ 대상의 ‘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였다.<sup>2)</sup> 그중에서 대학생 대상의 ‘디카시’ 활용 연구로 최호영에 주목할 수 있다. 최호영은 지역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한 작품을 감상하고, ‘원시(原詩)’에 나타난 체험의 양상을 학습자 본인의 맥락에서 새로 구상하는 방식과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시적 인식을 ‘디카시’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sup>3)</sup> 최호영의 연구에서 ‘디카시’ 창작이 시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스스로 의미를 생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인식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지역’이나 ‘과거(역사)’에 관한 주체적 인식 가능성을 경험하는 효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학습자에게 친숙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수 선행되어 있다.<sup>4)</sup>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어 회화 표현이나 다양한 어휘를 익히는 단계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고급 표현을 익히고 활용하는 교육에도 효

- 1) 이상옥이 고안한 개념인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를 결합한 장르 명칭이다(이상옥,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카시 창작 입문』, 복인, 2017, 18쪽).
- 2) 윤현진, 『시 교육 방법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에니팡시와 디카시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정옥영·이두곤, 『탐구중심 환경교육과 STEAM 교육의 융합적 교육 모형 제안』, 『環境教育』 28, 한국환경교육학회, 2015, 24-42쪽.
- 3) 최호영, 『다매체 시대의 문학교육과 디카시(dica-poem)의 교육적 활용 방향 : 체험 활동과 결부한 디카시 교육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과 융합』 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143-166쪽.
- 4) 이미혜,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 구성 : 수업 모형과 비디오 클립 제작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1, 189-216쪽; 안희,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방안 연구 : 인사표현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윤수정,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어 어휘 의미 제시 양상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과적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본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대사를 전달하는 배우의 발음이나 속도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대본 없이 듣기만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드라마의 실제 장면과 대본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개입이 늘어날 경우, 콘텐츠 활용 자체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5)</sup> 요컨대 한국인이 창작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학습 보조 자료로는 적합해 보인다. 그렇지만 ‘디카시’ 쓰기는 학습자가 직접 창작자로서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구체화하는 데에 다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포토포엠’과 ‘디카시’의 차이를 살펴보자. ‘포토포엠’은 이미 창작된 시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삽입하는 형식이지만, ‘디카시’는 사진 촬영과 시 창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sup>6)</sup> 내용상으로는 작성한 문장이 사진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sup>7)</sup> 이에 강정구는 ‘디카시’는 사진이 문자를 앞서 있으며, 사진이 창작되지 않으면 문자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정

5) 울산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초급 한국어 작문>에서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대본집과 영상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영상 자료를 감상하면서 대본집으로 표기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작가가 집필한 대본집과 방영된 드라마의 대사가 불일치하여 효율적이지 못했다.

6) 이상옥은 이미 창작된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서 편집한 것은 ‘디카시’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존의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덧붙여서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예술”이라고 소개한다(한국디카시 연구소, 『디카시, 제대로 알기』 [http://www.dicapoem.net/bbs/content.php?co\\_id=intro02](http://www.dicapoem.net/bbs/content.php?co_id=intro02)).

7) 사진을 찍는 행위와 5행 이하의 짧은 시는 ‘극순간’의 예술을 지향하는 디카시의 특성에서 말미암는다. “디카시에서 영상은 영상기호(…) 이 영상기호는 완결성을 지니는 사진예술로서의 영상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물에서 느낀 시적 형상 혹은 시적 감흥을 찍은 것”이라고 말한다(앞의 책, 25쪽). 시의 길이에 관해서는 서정시를 순간의 장르라고 규정한 김준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디카시는 극순간의 양식”이며 “디카시가 극순간의 양식으로서 문자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은 시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앞의 책, 79-81쪽).

리한다. ‘디카시’는 직접 촬영한 사진에 상징, 비유, 서술, 묘사, 언어유희 등의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창작하는 하나의 문학이다.<sup>8)</sup> 이와 같은 ‘디카시’의 조건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익히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사진 촬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작용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한국어로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가치를 두는 ‘대상(사물,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하면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감정과 생각)를 구상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기에 자신이 한국 생활에서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다음으로, ‘상징, 비유, 서술, 묘사, 언어유희’ 등의 표현은 학습자에게 다채로운 표현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라는 조건 때문에 ‘정형화된 한국어 표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디카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표현을 경험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촬영한 사진에 관한 짧은 문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만의 한국어를 형성하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뒤에서 보이겠지만,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라면 의도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고, 중급-중상급 수준의 학습자는 교수자의 피드백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sup>9)</sup>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활동이 학습자에게 동기유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0)</sup> ‘디카시’는 학습자 스스로 글

8) 강정구, 「디카시의 장르적 특성 고찰」,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307-310, 313-318쪽 참고.

9) 수준별 학습자를 편의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5급 고득점자·6급 취득자’는 고급에 해당하고, ‘4급 고득점자와 5급 취득자’는 중급·중상급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시험 성적 자체가 절대적인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준을 판별할 때 이 기준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0) 권순희·김경주·송지연·이영호·이윤빈·이정찬·주재우·변경가, 『작문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429-431쪽 참고.

쓰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관한 내용도 주관적으로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통제된 조건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교육할 때 학습자가 부담감(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흥미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11)</sup> ‘디카시’ 쓰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과제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한국어 사용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본 논의에서 살피는 자료는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국문주’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마련한 전시 행사 작품이다. 해당 전시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디카시’ 14편을 전시하였다.<sup>12)</sup> 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디카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13)</sup>

- 
- 1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 여러 조건이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에 관해 정해진 분량을 작성하는 글쓰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글쓰기 교육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때에도 한국어 쓰기를 즐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순한 시험 성적을 넘어 그들의 삶에 흡수하는 기회가 중요하다. 나오미 배런은 읽기 교육에서 ‘시간 압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많은 학생이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제한이 있는 시험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나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지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나오미 배런, 전병근 옮김,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크로스, 2023, 170쪽). 이런 주장은 읽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언제나 시간(이외의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 12) 본고는 다양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국어를 취미로 학습하는 외국인과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한 외국인, 업무에 필요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의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언어·문화 교수·학습의 이론적, 체계적 분석(유형화)이 아니라, 특정한 혹은 제한된 현상을 기초로 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아쉬움과 한계는 후속 연구로써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13) 다만, 본고에서 제안하는 바는 ‘디카시’ 쓰기만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 특히 쓰기 학습에 ‘디카시’ 쓰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 2. 외국인 유학생의 ‘디카시’ 작품 사례 분석

외국인 유학생이 창작한 ‘디카시’ 작품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생활 공간을 담은 사진으로 창작한 ‘디카시’로써 학습자가 생활 ‘공간’을 ‘장소’로 의미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디카시’에 나타난 한국어 표현 오류를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에 관한 침묵 지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학습자의 ‘디카시’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어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서 실시한 과제로써 ‘사진’이 ‘글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 글쓰기에서 ‘사진’의 역할과 ‘디카시’ 활용 가능성

<한국어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서는 ‘울산 간절곶’에 관한 글쓰기 과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해 보았다. 첫 번째는 ‘간절곶 소망 우체통에 관해’ 쓰기, 두 번째는 ‘소망 우체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소망 우체통에 관해 쓰기, 세 번째는 ‘소망 우체통이 담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5행의 시로 쓰기’이다.

울산 간절곶 소망 우체통은 울산 동해안의 해안공원에 있다. 이곳은 동쪽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잇달아 명소를 출석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 <그림 1> 학생 글쓰기 1

<그림 1>은 “울산 간절곶에 있는 소망 우체통에 관해 써 보세요”라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위 내용은 ‘소망 우체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실제로 작문 수업에서 ‘설명하는 글쓰기’ 과제를 부여할 때, 주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

우, 한국어 어휘, 문법, 문장 구성 등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참고하는 글이 정련된 전개 방식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잘못된 글쓰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제출한 글을 첨삭(피드백)하더라도 ‘타인의 글’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주어진 대상(주제)’을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및 답사 이후 감상문을 작성하게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학습자가 본인의 생활 공간과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황, 체험과 답사를 진행한 후 글쓰기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글쓰기 대상의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을 보면서 대상에 관한 글을 쓰도록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사진 속 이 커플은 두 사랑의 사랑이 연결하기를 바라는 중 포인드소망우체통의 소원을 비는 것은 사랑의 요괴도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망우체통도 그들의 사랑의 일종의 기막이다.

<그림 2> 학생 글쓰기 2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출생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이 아름다운 시기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다의 괴도처럼 끝까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소망우체통에 영원히 저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 3> 학생 글쓰기 3

<그림 2>는 ‘소망 우체통’에 관한 사진을 주면서 글을 쓰게 한 결과물이다. 이때, 학습자는 ‘소망 우체통’에 담긴 의미를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소망우체통도 그들의 사랑의 일종의 기막이다.”라는 문장은 ‘소망 우체통’이 해맞이 명소인 간절곳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존재라는 점과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인의 모습을 연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기에 학습자는 ‘간절곳’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줄어들



다. 교수자는 앞의 ‘설명하는 글쓰기’에서처럼 학습자의 글과 인터넷 정보의 유사성을 따지는 대신,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이 적절한 표현으로 잘 전달되는가에 집중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다섯 줄의 짧은 시’라는 ‘디카시’ 형식을 조건으로 주었을 때, 앞의 <그림 2>와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망 우체통’의 상징적 의미와 연인을 연결하고 있다. 다만, 전체 글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詩)’로 표현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글자 수만큼 사진(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은 그만큼 풍부해졌다.

같은 사진을 보고 <그림 2>에서 ‘소망 우체통’을 설명하면서 우체통 옆에 있는 연인에 집중했다면, <그림 3>에서는 ‘연인’, ‘바다’, ‘소망 우체통’ 그리고 사진의 프레임을 세상으로 규정한 모습이 눈에 띈다. ‘연인의 사랑=바다/파도’라는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파도’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흐름’으로 보았으며, ‘동해의 드넓은 수평선’을 ‘영원한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다. 나아가 ‘사진의 프레임’을 ‘지금 이 세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세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형성하는 사랑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이 된다.

표현방식에서도 “소망우체통도 그들의 사랑의 일종의 기탁이다.”처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소망우체통에 영원히 저장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심경 묘사로 처리하고 있다.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문장 학습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전자의 경우, ‘소망우체통’을 ‘정의’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소망우체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행위 및 감정’을 상상하여 묘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사진 속 등장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사진’을 제시하여 실시하는 ‘글쓰기’ 형식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표현을 끌어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한 단

어로서 글쓰기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 학습자가 그 주제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면 좁은 관점으로 주제를 설명하거나 기존 자료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물론, 해당 대상에 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글 완성할 수는 있다. 다만, '검색'이 허용되지 않는 통제된 상황이라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글쓰기'를 요구할 때는, 검색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상을 '추체험'하여 '경험 및 지식을 생성'하면서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보면서 어떤 대상에 관한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도록 할 때, 학습자가 그에 맞춰 한국어 기능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글쓰기 과제에서 '사진'은 주제를 이해하고 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글을 쓰도록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촬영)한 이유만으로도 어느 정도 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학습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창작한 '디카시'를 살펴보겠다.

## 2) 영상 이미지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앞서 '간절곶 소망 우체통'을 활용한 글쓰기는 '디카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디카시'의 창작 조건에는 창작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카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진'이다.

학습자는 '디카시' 쓰기를 위해서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진'을 찍는 활동은 한국어 교육에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듯하지만, '디카시'는 반드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학습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관찰하고 사진에 담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어떤 대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리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활용방안에 관

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전은주는 ‘로컬리티’에 관련한 한국어 교육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고,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14)</sup> 차운정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이 한국사적 측면만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지식습득을 넘어 학습자가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문화 이해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외국인 유학생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후행 연구에서도 받아들여 지역성을 활용한 교수 방법이 꾸준히 제안되는 상황이다.<sup>16)</sup>

‘디카시’ 쓰기가 로컬리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디카시’를 창작함으로써 학습자는 스스로 의미화한 장소를 구축할 수 있다. 리처드 세넷은 ‘시테(cité)’와 ‘빌(ville)’이라는 개념으로써 개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시테’는 그들이 생활하는 구체적인 장소임에 반해, ‘빌’은 전체적인 도시 형태를 가리킨다. 이때 ‘빌’은 한 도시가 추구하는 생활 양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이-푸 투안

14) 전은주는 “‘지방’, ‘지역’이라는 용어가 ‘수도’, ‘중앙’에 대하여 가지는 ‘소규모의’, ‘주변적인’ 등의 의미와 ‘지방성’, ‘지역성’ 등이 가질 수 있는 ‘의존적인’, ‘결핍된’ 등 부정적 의미를 배제하고 하고 그 지역이 지닌 고유성, 차이성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보다 작은 공간적 단위의 장소나 지역’에 나타나는 특성의 총체라는 의미로 ‘로컬리티(loc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전은주,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57-160쪽 참고).

15) 차운정, 『한국어교육에서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방안-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2019, 203-227쪽.

16) 진대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역문화 활용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6, 153-174쪽; 차운정, 『한국어 교육에서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방안 :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2019, 203-227쪽.

17) 리처드 세넷, 김병화 옮김, 『깃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2020, 8-12쪽. 그는 “오늘

은 인간에게 ‘공간’과 ‘장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서구에서 ‘공간’은 ‘자유’를 상징했고, 자유로운 상태는 곧 개방되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자유로운 공간에 노출된 주체는 인간화된 ‘장소’를 꿈꾼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은 장소를 벗어난 확장된 공간으로 나아간다.<sup>18)</sup>

학습자는 평소 습관처럼 지나다니는 ‘공간’을 사진으로 포착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 ‘장소’로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유학생은 자신이 생활하는 한국이라는 공간을 개인적 의미로 충만한 장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때, 학습자는 주어진 조건으로서 공간에 놓인 존재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장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사진을 찍고(대상을 선택하고)’, ‘시를 쓰는(감정과 생각을 구체화하는)’ 활동이 ‘공간’에 창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미화된 ‘장소’를 구성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sup>19)</sup>

외국인이 한국어로써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드러낸 사례는 사이트 마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트 마리오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시를 썼는데, 그 시인의 시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녹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으로 서

---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단혀 있는데, 단혀 방식은 테크놀로지 영역에서의 사건들을 반영”하면서 “도시 팽창 과정에서 대형 금융 및 건설 기업은 빌을 표준화한다”라고 지적한다(23쪽).

18) 이-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28-30쪽 참고. 예컨대 울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업도시 울산이라는 정체성으로만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파악하는 수가 많다. 울산대학교 및 울산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이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제시하였다.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학교, 강의실, 원룸, 기숙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촬영하고, 그 대상을 사진으로 포착할 때의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은 도시가 추구하는 ‘공간’의 특성으로서 ‘빌’을 벗어나 학생 자신만의 ‘장소’·‘시테’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19)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 개념에 관한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47-51쪽).

울에서 길어 올린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sup>20)</sup> 외국인 유학생이 창작한 ‘디카시’ 작품에서도, 그들이 한국(울산)이라는 공간에서 의미를 부여한 ‘장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낮이 짧아지고  
매미 소리도 그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변화가 없이  
계속 될 수 있다.

<그림 4> 가을의 밤



햇살이 내 얼굴에 키스하다  
석양을 들으며  
안녕이라고 말하다  
석양은 수줍은 아가씨 같다  
얼굴을 붉히며 슬쩍 웃다  
우린 서로 미련이 남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림 5> 석양과 황혼

<그림 4>는 울산대학교 20호관 후문에서 원형 잔디밭을 바라보며 촬

20) 사이토 마리코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서울에서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무언가를 보는 일, 그것뿐이었다. (...) 내 한국어 실력은 높지 않았다. 만약 한국말이 유창했다더라면 오히려 시를 안 썼을 것이다. 눈으로 본 것, 마음에 떠오른 것을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던 답답함이 시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사이토 마리코, 『단 하나의 눈송이』, 봄날의 책, 2018, 95쪽) 사이토 마리코는 한국어 문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글을 쓰지 못했기에 시라는 장르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려 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1년 2개월 동안 경험한 서울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점이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나는 편집자의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이나 어린이가 쓴 독특한 글을 수정하면 완전히 다른 글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수정은 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고쳤다.”(같은 책, 96쪽) 번역가로서 일하는 만큼 문법적인 오류는 분명히 다듬어야 하지만, 잘못된 문법이 지니는 매력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디카시의 활용은 바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싶다.

영한 사진으로 쓴 ‘디카시’이다.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학생들은 20호관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와 기숙사나 원룸으로 걸어서 귀가하거나 버스를 타고 중구 원도심이나 남구 외곽에 있는 거주지로 향한다. 20호관 옆에 식물원이 있고, 그 맞은 편에는 사진 속 원형 잔디밭이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휴식처가 된다. ‘매미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리’와 ‘이야기’라는 청각 이미지가 대비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변화가 없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없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의 일상은 지속된다. 대한민국 ‘울산’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향하는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상황은 보기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습자가 사진으로 담아낸 ‘공간’은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장소가 아닌,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유보되는 장소로서 의미를 형성한다.

<그림 5>는 ‘신복로터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찍은 노을 사진으로 창작한 시이다. 이 작품은 5행을 넘어선 ‘자유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디카시’로 분류할 수는 없다. 다만, 울산대학교 유학생의 생활 공간을 촬영한 사진으로써 창작한 시로서 지니는 의미는 살필 수 있다.

햇살을 받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석양이 질 때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에는 로터리가 많다. 로터리는 빙글빙글 돌면서 각자가 나아갈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교통 시설이다. 울산대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기숙사나 인근 원룸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체로 ‘신복로터리’를 거쳐서 등교하고, 학교를 벗어날 때도 ‘신복로터리’를 거친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학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유학생이라면, 신복로터리 주변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된다.

울산 시민이나 외지인 대부분이 ‘신복로터리’를 교통 체증이 심한 ‘공

간’으로 인식한다면,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만남의 즐거움과 이별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장소’일 수 있다. 이는 해당 시를 창작한 학습자가 ‘신복로터리’를 다른 장소로 향하기 위해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머물면서 생활하는 내밀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1)</sup>

이와 같은 사례에서 학습자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 짧은 글을 더하는 ‘디카시’ 쓰기 활동이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서 ‘지역’과 ‘일상’을 응시하는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활동이 누적되면서 학습자 본인만의 의미를 지닌 장소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 3) 표현 ‘오류’에 관한 첨삭 지도 방향 제언

한국인이 작성하는 문장에도 비문(非文)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정확한 한국어 문장 쓰기가 더욱 힘들다. 또한 대체로 모국어 문장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한국어 작문에서 그들이 보이는 비문은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어 작문’ 교과의 ‘교수 목표’는 ‘학습자 자신의 사고 및 감정을 ‘한국어로 전달’하는 데 있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잘못된 표현과 문법’을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디카시’ 창작을 한국어 학습에 도입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시적 허용’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비문법적 표현을 방어하는 한국인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창작자가 한국인이기에 의도적인 오류로 인정하기도 쉽다. 그러나 외국인이 창작한 ‘디카시’에 나타난 ‘오류’를 두고 ‘시적 허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

21) 이-푸 투안은 ‘공간’은 ‘움직임’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장소’는 ‘정지’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한다(앞의 책, 19쪽).

일반적으로 ‘시어’의 특성으로 언급하는 것이 ‘함축성’이다.<sup>22)</sup> ‘함축성’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단어를 두고 생각해 낼 수 있는 의미의 종류는 그 단어의 쓰임을 공유하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 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단어’와 ‘모국어 단어’를 ‘사전적으로’ 파악한다. 이때 모국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의 관계는 일대일 함수로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학습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단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다양성’은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안길 수도 있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으로 ‘애매성’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애매성’이 해당 언어를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문법과 어휘의 오류를 문학적 글쓰기에서는 포용할 수 있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오류로 보이지만,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생성적 언어활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디카시’ 쓰기는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어휘·문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로 ‘디카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양성’과 ‘애매성’을 함께 달성한다. 한국어 단어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모국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물론이고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서도 나타나는 오류 가능성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디카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휘와 문법 실수를 교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가 보인 ‘오류’가 나름대로 의미를 생성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디카시’ 작품을 보면서 ‘오류’에 관한 침묵 지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박태상·이상진·김신정, 『문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42-47쪽.





다음 생에는  
고양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  
집을 하나 구해  
타향에 정착한다.

<그림 6> 냥이



노을과 바람  
애뜻한 포옹.  
고개를 들고 보니  
세상의 아름다움.

<그림 7> 그날 19시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오류’는 ‘시제(時制)’이다. “다음 생”이라는 ‘미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는 문장임에도, “떠돌아다닌다”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 시 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창작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표현’인지, ‘오류’인지 판단하기 애매해진다. 일반적인 형태의 글쓰기였다면 ‘비문’으로 교정해야 할 문장이지만, ‘디카시’라는 문학적 글쓰기이기에 단순히 오류라고만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교수자는 이 표현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생’이라는 ‘미래’의 상황이 ‘현재의 마음’에 펼쳐지고 있으며, 현재 자신이 상상하는 시간 속에 깊이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자가 이와 같은 표현 가능성을 학습자에게 설명할 때, 학습자는 한국어에서 ‘시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더욱이 “다음 생에는 고양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와 같은 불분명한 시제 서술은 희곡 지문(地文)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기에 반드시 ‘비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글쓰기 사례는 ‘중급 한국어 작문’을 수강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작품이다. <그림 8>은 ‘디카시’ 형식에 맞춰서 글자 수 제한을 둔 것이고, <그림 9>는 사진을 찍어 자유롭게 글을 덧붙이는 형식이다. <그림 8>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행마다 ‘-네’라는 ‘어미’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은 시를 창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므로, 이 학생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시’라는 형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창작한 학생은 같은 소리의 반복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림 9>의 경우에는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지만, 맞춤법이나 문법 오류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구나 예쁜 하늘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늘에 볼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난다”라는 두 문장이다. 이 문장은 모두 ‘조사 오용’에 해당한다. 조사 ‘-에’는 ‘처소 시간 진행 방향 원인, 원인과 결과의 대상, 목적의 대상, 수단 방법’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특히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생각난다’라는 문장을 확장한 것이고, 주어와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나’가 ‘생각나는’ 상황을 상술한다. 이때에는 ‘나는 하늘을 볼 때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야 적절하다. 주어가 어떤 대상을 볼 때는 ‘나는 하늘에 본다’가 아닌 ‘나는 하늘을 본다’처럼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첫 문장 역시 이 문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하늘을 보면’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디카시’ 쓰기를 문법의 정확한 사용을 익히는 활동이 아닌, 학습한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확장할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피드백도 가능하다. “누구나 예쁜 하늘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문장을 “누구나 생각나는 사람이 예쁜 하늘에 있을 것 같다.”와 같이 ‘어순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침삭해 주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사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과 맑은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는 보편적인 양상을 반영한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늘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어순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경험을 표현하는 더욱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준다.

단순히 ‘조사를 고치거나’, ‘어순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닌, ‘생략한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누구나 보면’을 ‘누구나 가만히 보면/가만히 보면 누구나’로 수정하면서 적절한 부사를 찾고, 그럼으로써 전달하려는 의미를 선명히 하는 연습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을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작품을 창작한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하면 된다. 위의 작품은 중급 수준 학습자의 것이므로 ‘조사 오용’을 바로잡는 방식으로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고급’ 혹은 ‘고급 이상’ 학습자로 나아갈수록 다양한 문장 생성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피드백이 유의미하다고 본다.<sup>24)</sup>

### 3. ‘디카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교육과정 구성 방안

앞에서 보인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에 ‘디카시’ 쓰기를 활용할 경우 생각해야 할 요소들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디카시’ 쓰기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본 논

24)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5행 이하’의 짧은 글로써 ‘사진’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디카시’ 쓰기에서 문법적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오류 양상에 관해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한국어 문법 자체에 관한 접근과 문학을 구성하는 표현에 관한 접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전자의 경우를 강조할 때는 조사 오용, 어순, 시제 등에 관한 교정에 중점을 두고, 후자의 경우 학습자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양상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두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의에서 교육 목표 및 대상, 내용 및 방법,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1) 교육 목표 및 교육 대상

Sandra McKay(1982)는 제2언어 교육에서 문학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2언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주요 목표는 문법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학이 가진 구조적인 복잡함과 독특한 언어 사용은 주요 목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더욱이 특정 문화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주요 목표 도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는 초급 단계의 목표 설정에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이나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초적인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문학 특히 시를 활용하는 것은 중·고급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윤여탁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은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문학을 통해 한국어 표현방법과 한국인의 사유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문학은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25)</sup>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디카시’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쓰기 능력을 향상하며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136-145쪽.

• 어휘

- 다양한 어휘 확장: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여 사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 정확한 어휘 사용: 사진에서 포착한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모호함을 최소화하여 더 감동적이고 생생한 디카시 작성 능력을 강화한다.
- 창의적인 어휘 활용: 일상적인 단어와는 다른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사진에서의 순간을 독자적인 시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운다.

• 표현법

- 언어 능력 향상: 문학적 장치를 습득하여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과 시를 통해 자유롭게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창의적인 표현 방법 습득: 사진에 담긴 이미지를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풍부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 표현 능력 강화: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사진 속 감정, 경험, 인상 등을 묘사, 의인, 은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 문화

- 문화적 이해와 존중: 사진을 통해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 문화적 소양 확장: 각국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덕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문화 간 상호작용 촉진: 지역적 특수성을 띠는 장소나 대상에서 자국

의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문화이해능력을 기른다.

## 2) 교육 내용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학습을 통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네 가지 기능의 숙달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 교육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디카시’ 창작은 한국어 학습의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별 기능 목록을 살펴보았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태도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등 다섯 가지 기능이 제시된다. 이 중에서 ‘디카시’라는 문학적 글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감정 표현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가 창작 주체의 정서를 표현하는 쓰기 행위라고 볼 때 이러한 짐작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학적 글쓰기는 한국어 문장에 숙달된 학습자가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혜가 제시하는 한국어 숙달 정도에 따른 글쓰기 장르를 볼 때, 고급 과정에서는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이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지향하는 고급 과정의 글쓰기가 논리적인 글쓰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별 기능 목록>에는 ‘감정 표현하기’가 지속되고 있고, 등급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볼 때,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 장르가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6) 이미혜는 숙달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초급에서는 ‘정보 전달의 글’, ‘정서·감정 표현의 글’, ‘친교의 글’, 중급에서는 ‘정서·감정 표현의 글’, ‘분석·주장의 글’, 고급에서는 ‘분석·주장의 글’, ‘정보 전달의 글’을 제시한다. 특히 정서·감정 표현의 글의 구체적인 장르로는 “간단한 수필, 경험담, 감상문, 기행문, 수필, 창작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이미혜, 2013, 241-243쪽(최은지, 『한국어 쓰기 교육론』, 하우, 2019, 115쪽에서 재인용.).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등급별 평가 총괄 목표>에는 “2수준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에 ‘시’가 포함되어 있다. 평가 목표에는 ‘시’라는 장르를 다루게 되어 있음에도, <등급별 기능 목록>에서는 문학적 표현을 위한 기능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면 예컨대, ‘은유, 상징’ 같은 기법이다.

반대로 정보 전달이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기능을 문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등급별 기능 목록> 가운데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에는 ‘설명, 진술, 보고, 묘사, 서술, 기술, 확인, 비교, 대조, 수정, 질문과 답’하기가 들어 있다. 이 기능은 ‘시적 표현’을 사용할 때도 사용하는 것들이다. 자신의 상상 혹은 감정 역시 ‘정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대로 사회 현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은유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어진 문제 상황을 속담이나 격언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27)</sup>

문자로만 이루어진 시가 아닌 사진과 시가 결합한 ‘디카시’는 자신이 사진으로 촬영한 대상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기에,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기능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를 창작하는 주체는 사진을 바탕으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정보를 적절히 해석하고 그와 관련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그에 앞서 의미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한 상황 관찰과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감정 표현하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

27) ‘시’라는 장르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 가운데 ‘은유’는 문학 장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G. 레이코프·M. 존슨은 은유란 시적 상상력이나 풍부한 수사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G. 레이코프·M. 존슨,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22-24쪽). 이는 은유가 단순한 기법적 차원을 넘어 서서 대상의 이면을 발견하는 언어 활동이라는 점으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도와 준다. 한국어 학습자가 특히, 한국의 사회 문화와 같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글쓰기를 할 때도 은유적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어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기능 중심의 수업에서 항상 선행되는 학습 내용은 어휘이다. ‘디카시’ 쓰기는 표현 교육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어휘를 통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디카시’ 쓰기의 경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 표현 어휘가 항상 사용된다. 수업에서 시를 활용할 때는 문법이나 지식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시에는 보통 사랑, 그리움, 후회, 분노 등의 인류 보편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감정과 정서는 쉽게 이해되는 편이라서 문화적인 특수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감정어휘 목록은 ‘현대국어 사용 빈도와 한국어 학습용 어휘’를 기반으로 한 이효정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고,<sup>28)</sup> 이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기능을 기준삼아 등급별로 나누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감정 어휘 목록>

등급	등급별 어휘 목록
초급용 학습 어휘 목록	놀람 표현 - 곱다, 귀엽다, 멋있다, 아름답다, 예쁘다 선호 표현 - 괜찮다, (기분)나쁘다, 쉽다, 싫다, 어렵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기분)좋다, 좋아하다 희로애락 표현 - 감사하다, 걱정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반갑다, 복잡하다, 사랑하다, 슬프다, 아프다, 즐겁다, 죄송하다, 화나다, 힘들다
중급용 학습 어휘 목록	만족/불만족 표현 - 만족하다, 못마땅하다, 시원하다, 심심하다, 언짢다, 즐기다, 지겹다, 지루하다, 처량하다, 행복하다, 후련하다, 호뭇하다 걱정 표현 - 초조하다,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 고민 표현 - 난처하다, 낯설다, 막연하다, 부담스럽다, 부끄럽다, 비참하다,

28) 이효정,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감정 어휘 목록 작성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2015, 271-302쪽.

	<p>서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씩스럽다, 우울하다, 외롭다, 창피하다          위로 표현 - 괴롭다, 안타깝다          불평·불만 표현 - 갑갑하다, 갈등하다, 골나다, 께쌌하다, 귀찮다, 답답하다, 따분하다, 밋다, 번거롭다, 알밋다, 억울하다, 질리다          후회 표현 - 불행하다, 불편하다, 서글프다, 속상하다, 아깝다, 이쉽다          안도 표현 - 편안하다, 편하다,          놀람 표현 - 감동하다, 놀랍다, 신기하다, 자랑스럽다          선호 표현 - 궁금하다, 기대하다, 부럽다, 흥미롭다          희로애락 표현 - 가없다, 고소하다, 그립다, 기쁘다, 당황하다, 딱하다, 분하다, 불쌍하다, 설레다, 쓸쓸하다, 어색하다, 우습다, 정들다, 흥겹다</p>
<p>고급용          학습          어휘          목록</p>	<p>만족/불만족 표현 - 감미롭다, 보람차다, 뿌듯하다/ 꺼리다, 꺼림칙하다, 불만스럽다, 상쾌하다, 싫증나다, 암담하다, 적적하다, 힘겹다          걱정 표현 - 겁나다, 긴장하다, 근심하다, 염려하다, 우려하다          고민 표현 - 곤란하다, 난감하다, 노심초사하다, 막막하다, 서먹서먹하다, 심란하다, 애타다, 허탈하다          위로 표현 - 낙심하다, 대견하다, 소중하다, 안쓰럽다          불평·불만 표현 어휘 - 거북하다, 거슬리다, 고통스럽다, 끔찍하다, 불쾌하다, 성가시다, 실망하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역겹다, 원망하다, 지긋지긋하다, 짜증나다, 혐오하다          후회 표현 - 절망하다, 좌절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안도 표현 - 든든하다, 안심하다, 평화롭다, 흥분하다          놀람 표현 - 기겁하다, 경이롭다, 뜻밖이다          선호 표현 - 황홀하다, 흡족하다, 흥분하다, 희망하다          희로애락 어휘 - 감격스럽다, 노엽다, 노하다, 눈물겹다, 들뜨다, 벅차다, 분노하다, 성나다, 신나다, 신명나다, 원통하다, 유쾌하다, 짜릿하다          심정 표현 - 고독하다, 답답하다, 동경하다, 몽클하다, 새삼스럽다, 송구하다, 수줍다, 시무룩하다, 시원섭섭하다, 약 오르다, 애태우다, 애뜻하다, 울적하다, 자신만만하다, 증오하다, 쟁하다, 질투하다, 처참하다, 허전하다, 황당하다</p>

• 표현법

감정 어휘, 색채 어휘 등을 학습하면 표현력이 확장되고 시적 표현법을 학습하면 표현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은유, 직유, 의인화, 심상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시적 장치를 표현법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을 사용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때 한국어가 지닌 언어적 특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명, 진술, 보고, 묘사, 서술, 기술, 확인, 비교, 대조’ 등의 표현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문화

등급별로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 축제, 문화유산, 지명, 생활 문화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지역 축제는 타지역인들과 구분되는 현지인들의 독특한 감정과 문화가 내제되어 있는 행사이다. 또한 지역마다 문화유산이 다양한데 이 문화유산의 풍경, 소리, 냄새, 색채 등은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명은 보통 기원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토리를 이용하여 지역의 풍경이나 역사를 통합하는 내용은 ‘디카시’ 쓰기의 좋은 소재가 된다. 생활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지역 음식은 맛이나 냄새 등이 디카시를 쓰기 위해 특별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 3) 교육 방법

앞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디카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직접 사진을 찍는 등의 실제적 활동을 통하여 지도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둘째, ‘디카시’를 쓰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변의 요소들이 대상이 되기 쉽다. 지역 사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교수-학습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자료로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디카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디카시’ 쓰기에 도움을 주는 어휘, 표현법, 문화 자료를 제시하

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학습자가 감정 표현 어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별 어휘 목록을 제공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교육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과정의 일관성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디카시’ 쓰기의 한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로 이어질 것이다. ‘디카시’ 쓰기 교수·학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어휘, 표현법, 문화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 어휘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 시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단계는 학습하게 될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고, 어휘를 확장시키며, 문법 습득 및 다양한 의사소통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어휘 브레인스토밍: 사진 속 사물, 인물, 장소, 색채 등을 한국어로 기술하게 한다.
- 제시된 감정 어휘를 그룹화하여 어휘장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학습자가 선택한 소재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
  - 예) 감정어휘장1 - 긍정적 감정어휘, 부정적 감정어휘
  - 감정어휘장2 - 사랑, 후회, 그리움, 분노
  - 심리어휘장 - 성격어휘, 인지어휘, 동기어휘
- 사진 속 피사체의 색채를 활용하여 그 색채가 상징하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 피사체의 한국어 발음이 주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문학 작품 활용: 실제 시나 소설에서 사용되는 감정 어휘나 색채 어휘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 표현법

표현법(시적 장치)은 사진의 시각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창작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다 시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은유, 직유, 의인화, 심상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시적 장치를 소개하고 ‘디카시’에서 보다 생생하고 표현력 있는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사진첩 속 사진을 이용하여 의인, 은유, 직유, 묘사, 연상 등의 시적 표현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 표현법을 적용하여 정서나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문장 연습을 하게 한다.

- 문화

-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와 본국의 축제의 문화를 비교하게 한다.
-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음식의 맛이나 냄새 등을 특별한 정서와 연결시켜 ‘디카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명의 기원이나 특별한 의미를 찾아 지역의 풍경이나 역사를 통합하여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이미지, 소리, 냄새, 색채 등을 떠올려 ‘디카시’를 쓸 수 있게 한다.

#### 4) 교육 평가

‘디카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평가란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졌는지, 목표에서 설정한 형식이나 양식에 맞게 잘 구현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디카시’에 적용하여 보면 목표에서 설정한 형식이나 양식에 맞게 구성하면서 완결된 ‘디카

시'를 썼는가? 이 '디카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디카시'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등의 문답 사항에 따라 체크해 볼 수 있다. 더욱 구체화하면 '정형화된 표현', '기초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 '구어와 문어', '문화 이해' 등이 사진을 찍고 그에 관한 시를 작성하는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

읽기나 듣기와 달리 쓰기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며, 교사의 피드백이나 평가를 받고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피드백은 문법적 정확성이나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 등의 점검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며, 문법적 오류가 또 다른 발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지도해 줄 수 있다.

글쓰기 과제 이후에 교수자가 학습자의 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표2 디카시 쓰기 평가 시 유의 사항>

교사의 평가 활동	교수자는 학습자의 결과물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고 조언한다(비문의 수정과 의미적 확장을 염두에 둔다).
교사 평가 유의 사항	-사진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초급 중급 학습자일 경우에는 문법의 정확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되, 고급 학습자일 경우에는 문법의 정확한 사용에 더해 이른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알려주도록 한다.
장점	-시간 및 조건 제한 글쓰기에 관한 부담을 덜어준다. -사진과 글을 결합한 형태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 이외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유심히 살피는 기회를 준다. -지역 사회를 다채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	-시험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은 글쓰기를 배울 수 없다. -지나치게 짧은 문장으로 완성하면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제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디카시’를 활용한 글쓰기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글에 관해 일방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작문과 달리 ‘디카시’ 쓰기 활동은 시험과 같은 시간과 조건이 제한된 글쓰기에 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덜어주고, 한국어로 글을 쓰는 일이 일상에 스미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이로써 글쓰기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는 목적 외에도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스스로 살펴 유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비문 수정을 넘어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설명하는 ‘디카시’의 평가에서는 수행 여부 자체가 가장 큰 평가 항목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단점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를 상상할 때, 기존의 한국어 학습 및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가 지니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믿는다.

#### 4. 결론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관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졸업 후 한국어 교사, 통·번역가가 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업은 정확한 문법 지식과 한국어와 모국어 체계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언어의 이상적인 문법과 현실적인 사용에 나타나는 차이도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단순히 교재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에 비할 때, 한국어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유학생의 경우에는 교재에 수록된 정형화된 한국어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한국어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디카시’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이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울산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의 2개 교과목에서 부여했던 ‘디카시’ 형식을 활용한 글쓰기 과제와 국문주 ‘디카시’ 전시 행사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디카시’ 창작이 한국어 기능 연습에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열어주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한국 생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자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단순한 문학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기능 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덧붙여 보았다. 물론,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수준, 모국어-한국어의 번역 과정 유무, 지역에 관한 이해 정도, 학습자 국적에 따른 글쓰기 과제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가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방법 모색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202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국문주 디카시 전시 작품  
한국어문학전공 <중급한국어작문>(2학기 과정) 과제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 보고서 작성 및 발표>(6학기 과정) 과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 2. 참고 논저

강정구, 「디카시의 장르적 특성 고찰」,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297-323쪽.

권순희·김경주·송지언·이영호·이윤빈·이정찬·주재우·변경가, 『작문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문금현,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7-47쪽.

\_\_\_\_\_,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언어학회, 2012, 175-200쪽.

박태상·이상진·김신정, 『문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안 피,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방안 연구 : 인사표 현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윤수정,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어 어휘 의미 제시 양상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136-145쪽.

이상옥,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카시 창작 입문』, 복인, 2017.

- 이효정,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감정 어휘 목록 작성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5, 271-302쪽.
- 전은주, 「국제 도시 부산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361-397쪽.
- \_\_\_\_\_,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53-181쪽.
- 진대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역문화 활용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6, 153-174쪽.
- 차윤정, 「한국어교육에서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방안-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2019, 203-227쪽.
- 최은지, 『한국어 쓰기 교육론』, 하우, 2019.
- 최호영, 「다매체 시대의 문학교육과 디카시(dica-poem)의 교육적 활용 방향 : 체험 활동과 결부한 디카시 교육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과 융합』 43권 8호(통권 84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143-166쪽.
- 나오미 배런, 전병근 옮김,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크로스, 2023.
- 리처드 세넷, 김병화 옮김, 『짓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2020.
- 이-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 G. 레이코프·M. 존슨,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 McKay, Sandra.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16 No.4, Wiley-Blackwell Publishing, 1982, 529-536.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n using ‘dicapoem’ writing

Jeong, Yong-Ho\* · Kim, Jeong-Soon\*\*

‘Dica-poem’(Digital camera poem) is a new form of literature that combines poems with pi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Dica-poem’ in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 learners.

Educating using ‘Dica-poem’ can help motivate Korean language learners, as tradi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often focuses on time-limited writing or academic writing, may hinder the maintenance of learners’ motivation. Additionally, learners can study ways to translate words into different meanings or express their ideas beyond formal grammar, which can be valuable skills for future careers such as creative translation or bilingual writing. Furthermore,

‘Dica-poem’ provides learners with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ir study abroad experiences by using pictures taken in their daily life, which can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gion where they live.

Key Words: Dica-poem, foreign learner, Korean language, education

■ 논문접수 : 2023년 03월 09일

■ 심사완료 : 2023년 04월 12일

■ 게재확정 : 2023년 04월 18일

---

\*,\*\* Ulsan University.

